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일문 암송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관 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성령으로 충만한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소서!

오늘, 성령강림 주일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망의 권세는 깨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골 2:15)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40여 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행 1:3)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행 1:4) 즉 "성령 세례" (행 1:5)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120여 명의 제자들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행 1:14)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던 다락방에 "홀연히" (행 2:2)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하시는 운동은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은사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행 2:2) 이 오순절 성령강림은 인류의

구속사에 있어서 첫 창조에 이은 재창조 사건입니다. 성령이 강림했던 그 날은 곧 교회의 시대, 선교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개막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룩 거룩 하신 주, 하늘과 땅에 가득한 영광과 존귀 가득 찼도다." (거룩하시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강림하신 성령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또 매 순간 죄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2007년 제2차 청지기운전

"서로 사랑하자" (요일 4:7-11)

6월 15일 금요찬양집회 시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대의 풍토는 교회마저 이기심과 다름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웃들을 함부로 비판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와 교회를 향해 사랑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요한일서 4장과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풍성한 십자가의 복음이 6월 15일 저녁 7:30에 충현교회 예배당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은총의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충현의 성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미리 알려 은총으로 충만한 청지기운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4:10)

6월 교회 일정

2일(토) CMTC 제3차 1월 수련회 (오후 2:00)

3일(주) 여름 성경학교 교사강습회 (매곡교회위반, 오후 12:20)

CMTC 추가 훈련 (전양영매 주)

10일(주) CMTC 추가 훈련 (전양영매 주)

13일(수) 안수집사회 헌신예배 (수요 2부 예배 시), 장기당회 (수요 2부 예배 후)

15일(금) 2007년 제2차 청지기훈련 (금요일찬양회 시)

20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 (수요 1부 예배 후, 여전도회)

23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 (오후 2:00, 남전도회)

24일(주) 제3차 침식 및 세례식

성령의 말씀

성령강림

성령의 강림과 함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행 2:1~4) 그들은 이제 혀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성령에게 온전히 굴복되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진다. 꼬꾸라지는 사람들도 있다.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겸손케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다. 이렇듯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다. 오직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뿐이다. (고전 1:29)

놀림이 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서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혀까지 한순간에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며 놀라고 또 놀란다. (고전 1:24 ; 행 1:4)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큰 역사이다. 그런데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세계 여행이나 외국어 공부를 해 본 일도 없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각 나라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그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거침없이 말한다. 이들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계속적인 교제가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행 2:42)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이루어진다. (요일 2:27 ; 요 14:16)

거룩한 용기가 생긴다 이전에는 권세자들이 두려웠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얻은 것이다. (행 4:13)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행 4:19,20)라고 대담히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다.

담대한 간증과 증거가 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사도들의 증거에는 큰 능력이 뒤따랐고 그들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얻었다. (행 4:31~33)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의 간증과 증거는 얼마나 담대하고 능력이 있었는지 반대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행 6:10 ; 습 4:6)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조금도 꺼리지 않고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행 20:26,27) 주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담대한 간증과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 (요 14:12)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다 즐거움의 기쁨, 곧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왔다. (시 45:7,8)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아름다움 향기가 진하게 흘러나기를 바란다. 여호와와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사 61:3). 오순절 날 성령은 밀폐된 공간에 강림하였다. 그러나 십자가의 향기는 온 세상에 퍼져나갔고 결국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김성관 위임목사

PEACE

⁽²²⁾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²³⁾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alatians 5:22&23)

The fruit of the Spirit is amazingly wonderful! Such quality of excellence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This blessed fruit produced from the Holy Spirit enriches Christian lives because God wants to do good things in us. Unfortunately, there is a huge contrast between His fruit and our works. Our works come from fleshly effort, but His fruit is grown from within us. Peace is one of the nine attributes of the Holy Spirit's fruit. He wants to bring God's peace into our godly life. He wants to give real peace to Christians, not the kind of peace that humans try vainly to possess through their own efforts but the kind of peace that comes from heaven.

The Holy Spirit gives you peace with God. Without the Holy Spirit, you cannot have peace with God no matter how hard you try with your own dumb makings. It is impossible because you are not naturally at peace with God. Sin broke the peaceful relationship with God in the Garden of Eden, which is why the world is in trouble. People vainly try to find peace in pleasure, in entertainment, in substances (like alcohol, cigarettes, marijuana, cocaine, and other drugs), and in financial security. The Bible specifically tells you that without God there is no peace. Pretend peace only leads to more trouble, more sin. Isaiah 57:20&21 says, "But the wicked are like the tossing sea, For it cannot be quiet, And its waters toss up refuse and mud. 'There is no peace,' says my God, 'for the wicked'." We are wicked. God wants to give us peace, which is why He sent His Son to die for the sinner, the wicked. Jesus Christ is the foundation of peace. He came to bring us peace,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made both groups into one and broke down the barrier of the dividing wall, 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enmity, which is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ordinances, so that in Himself He might make the two into one new man, thus establishing peace, and might reconcile them both in one body to God through the cross, by it having put to death the enmity." (Eph. 2:14~16) The creator (God) and the creature (you) can dwell in one body. Some Christians have peace but do not feel peaceful. Peace with God should not be limited, for God's peace is unlimited. There is no situation or circumstance in which your peace with God is unavailable. If you let your emotions take control, then as a

Christian you will not feel peaceful, but if you let the Holy Spirit take control, then you will feel peaceful.

The Holy Spirit gives you the peace of God. My dear friend, the peace of God is for all circumstances. When things are not going well, when anxiety rises, when funds are low and debts are high, when health is uncertain, when storms rage, and when bad things happen the peace of God sustains you. Many Christians do not know real peace. They are always yelling, screaming, and grieving the Holy Spirit. God's formula for this is prayer. The Holy Spirit prompts you to pray. Philippians 4:6&7 says,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Amen. The peace of God is real. It comes from God Himself. The Holy Spirit within you will overcome all persecutions, all awful things, even death. It does not matter how bad things are, the Holy Spirit will still give you a thankful heart.

The Holy Spirit gives you peace with others. If you have the Holy Spirit's peace, then you naturally give it to others. The Holy Spirit breaks down barriers between believers. The unity of the Spirit is the bond of peace. This is always the characteristic of a revival. Just look at the early church, "These all with one mind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Acts 1:14), "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Acts 2:1), and "And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where they had gathered together was shaken,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Acts 4:31) What a testimony! If you have real peace, then God can use you to do amazing things.

My dear friend, please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The Bible tells us,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Let all bitterness and wrath and anger and clamor and slander be put away from you, along with all malice." (Eph. 4:30&31) The Holy Spirit came to mend your relationship with God. Stop resisting Him. Be sensitive to His voice. Allow His peace to rule in your heart. 🙏

화평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김성관 목사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의 열매와 인간의 업적 사이에는 상당히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인간의 업적은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자라갑니다. 화평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경건 생활 속에 하나님의 화평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헛되이 얻고자 하는 종류의 화평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화평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성령

성령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에덴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곤경에 처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 또 술이나 담배, 마약 같은 악물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하지만 모두 헛수고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도 화평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된 화평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죄를 낳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57:20,21은 말합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 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겠느니라”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 곧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엢 2:14~16) 창조주(하나님)와 피조물(우리)이 한 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일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여러분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주시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화평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근심이 밀려올 때, 돈이 바닥나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갈 때, 건강에 위험 신호가 울 때, 폭풍이 사납게 몰아칠 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은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속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소리를 지르고, 절규하며,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빌립보서 4:6,7은 말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화평은 진짜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압박과 두려운 일들, 심지어 죽음마저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불행의 크고 작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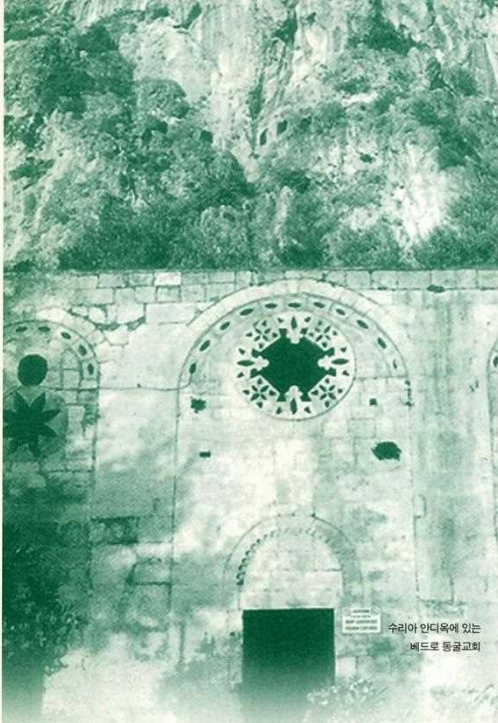
사람들과 화평케 하시는 성령

성령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들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성령의 연합이 화평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부흥이 일어날 때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행 1:14)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행 2:1)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 4:31) 이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화평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망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엢 4:30,31) 성령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께 대항하는 일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성령의 목소리에 민감해지십시오. 그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안디옥교회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안디옥교회는 선교로 시작되었다. 선교를 통해서 말이다!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트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대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찰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행 13:1) 이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다른 직책의 책임을 맡고 있었고, 그 중 몇몇은 이름도 언급되어 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할 만큼 신실하고 관대한 사람이었다.(행 4:34~37) 시므온은 니게트라라고도 불리었다. 니게르는 라틴어 명칭으로서, 아프리카 사람이임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이처럼 안디옥교회에는 확실히 차별이 없었다.(눅 23:26) 안디옥 교회에는 또한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 완전히 변한 사울이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다.

이같이 각각 다른 성격과 지리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교회에 함께 모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다. 또한 그들은 선교를 향한 한 마음을 가졌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가? 아마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기 때문이었다. 서로 다른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다양한 이방인이 함께 만난 것은 누군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총을 전해야 한다.

각 영혼을 향한 사랑을 품은 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안디옥교회를 보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2,3) 이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청종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떠났다. 그들은 순종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탁월한 설교자들이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최고의 설교자들을 멀리 보내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바 대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

안디옥교회가 선교사들을 선교지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파송했는가? 그들은 작별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행 13:4,5) 또한 안디옥교회는 가고자 하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을 통해 교회에 의해 파송되었던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은 안디옥교회는 역시 성령의 역사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김성관 위임목사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3교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라 하셨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순간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의 은총과 그의 능력을 믿기에 죄로 가득한 악한 모습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3교구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길 원한다.

3교구는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일부(이전의 상록지역 일부) 지역으로 모두 5지역, 17구역, 7개 전도회로 조직되어 있다. 지역 편성이 비교적 세분화 되어 성도들의 가정을 세세히 돌아보는 일이 가능해졌으며, 각 지역에 세워진 지역장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교계를 나누며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모두가 기도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살후 1:11)

우리 교구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 이상 읽는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또한 교구모임 시 성경을 한 절씩 암

송하며, 공 예배와 모든 집회와 모임 참석은 물론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교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다. 또한 교구 연합기도회와 분기별 교구 영성훈련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여 죄 사함을 얻어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힘쓰고 있다. 교구모임 시간에 지역별 찬송을 통해 지역식구들을 소개하고 자원봉사에 힘쓰는 교구가 되도록 교구의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모든 교구 식구들은 은혜 받은 성도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져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의 사명도 감당할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매주 전화와 심방,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중요잔상집회에 참석하기를 강권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원동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엡 6:18)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3교구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교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교구의 일꾼과 모든 교구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할 것이다.



구제안장로, 제3교구장

복음을 갈망하는 순수한 영혼들

나에게 선교지는 너무나도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게선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어 고통받는 자 열에 계산하고 있었기에 그곳에도 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 는 낯선 이방인들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언제나 웃음 띤 얇은 미소가 맴돌고 있었고 어느 새 나도 그들의 미소에 빠져 나다 모르게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조금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한 행동으로 주님의 복음 증거보다는 주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차츰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선교훈련을 통해서 주셨던 믿음은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사역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거침없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달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뿐인 화고 안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과도 꼭 함께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나의 입술은 더 이상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학생들의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비록 원만한 의사소통은 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갈망하는 그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최종현(임사, 24교구 4팀)

오늘도 순종하며 전도지를 행거

교구 개편으로 전도 지역이 새롭게 조정되었다. 입이 벌어졌다. 원래 담당했던 지역이 넓어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려면 한 달에 3번은 나가야 했다. 그런데 개편된 교구의 마리아 전도회의 회원수는 줄었는데 전도해야 할 지역은 오히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때에 주님은 은총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셨다. 처음 전도했던 때를 기억한다. 요즘은 현관부터 비밀번호가 설치되어 있어 들어갈 수도 없는 때면 집집마다 가라고 한다. 이런저런 불평들이 나왔지만 마리아 식구들은 감사하게도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며 순종하기로 했다. 먼저 정해진 곳으로 탐방을 나섰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 전기계량기를 살펴며 세대수를 확인하고, 번지수와 가계, 빌딩 등을 살펴 세대수에 맞게 건물마다 2인 1조로 담당자를 정해 가능하면 매주 나섰다. 다들 순종하며 한 집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매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

다세대연립에 들어갈 때면 경비이자씨가 무서워 숨어들어가기도 하고, 일일이 쫓았던 전도지를 다시 내 손으로 빼야 하는 일도 있었다. 언젠가는 젊은 남자가 펜티 바람으로 나와 얼굴을 붉히며 찔끔하기도 하였다. 마리아 식구들은 자녀들이 어릴때다 임신부도 종종 있다. 무거운 배를 움켜쥐거나 아이들이 아프면 서로 돌보아주면서 전도를 나왔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비가 오고 눈이 와서 힘들 때마다 아픈과 졸이 그랬듯 서로를 격려하며 살은 소의 한편 하지 않고 나쁜 마리아 식구들을 보며 가슴이悶할 때도 많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사이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은 어느 새 우리를 해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고, 무서울 땀 마음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였다. 단기간교 때를 기억한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경찰들에게 쫓겨다니며 얼마나 힘들었던가! 우리나라에 들어가면 "마음껏 전도하겠노라."고 다짐을 했건만, 역시 전도는 환경과 여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그해 전도 지역이 넓어졌으면 어쩌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확신한다. 전도지역 탐방 결과 예상대로 종전의 200세대 정도에서 500세대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오늘도 순종하며 전도지를 행거 그들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간다.

이수진(임사, 1교구)

성령의 사역

52,410 교구 연합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또 살아가는 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열망한다는 것이 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원래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원래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조금씩 작아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경자 집사)

악수를 청하는 내게 소포 물은 손을 자기 못에 닿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모습에 '이것이 참 전도의 기쁨이구나! 내가 어디에서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에 소년과 나는 함께 열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이 소년을 더위와 같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김호준 권사)

선교지는 문명들이 매우 높았습니다. 외부 교육이 실시되고도 않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물론 20대의 젊은이조차 글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짧은 언어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도 간혹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순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만날 만만하디 만만하디 영혼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영경 집사)

'아직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구나! 정신 차려! 나 자신에게 채찍질하며, '주님 너무 무서워요.'도 주세요. 성령님이 도와 주셔야 돼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청년이 팔팔 뛰면서 야유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규숙 권사)

선교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큰 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열망한 현지 사람들에게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지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병만 권사)

육신적으로 약했던 팀원들이 많아 우리는 열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지에서의 우리 팀은 마치 전쟁터의 군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화장실도 따로 없고 동물들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구경물에서 즐겁게 수영하고 있는 아이들, 악취와 오물무성인 이들을 안아 주고 뽀뽀해 주며 같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팀원들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송희명 집사)

사역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 이름 정도는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몰랐습니다. 시골 들에서 소떼를 몰고가는 목동에게 복음을 전하자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통하여 복음을 있게 하고 함께 찬양을 하자,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였고 눈물 흘리며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김국록 안수집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6일(수) - 5월 24일(목)	6·7교구 연합	임상직
5월 16일(수) - 5월 25일(금)	3·1·2·4교구 연합	이부성
5월 17일(목) - 5월 25일(금)	14·15교구 연합	류기명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1일(월) - 6월 1일(금)	18·20교구 연합	김영환
5월 23일(수) - 5월 30일(수)	19·2·10·18교구 연합	안준모
5월 23일(수) - 5월 31일(목)	17·8교구 연합	최경하
5월 24일(목) - 6월 1일(금)	10·9교구 연합	정철석

기 간	평신도 단기간교사
4월 4일(수) - 6월 23일(목)	정영미·전혜영(여대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8일(월) - 6월 5일(목)	11·12교구 연합	조영철
6월 2일(목) - 6월 9일(목)	8교구·청년부 연합	조종민
6월 2일(목) - 6월 9일(목)	7·3·6교구 연합	송헌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겉으로 볼 때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듯했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호(고전 13:13)으로 정해놓고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님을 신장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세상 일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 삶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구태연한 나의 어리석은 믿음이 었던 것이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무지했던 나의 신앙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내일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에서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말이다. 이처럼 주님만을 믿고 따르니 성령께서 나에게 감사와 찬송을 주셨다. 특히 사랑을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나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다. 그리고 문득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찬양할 때 모든 공동체는 복음으로 하나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처럼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놀란다. 왜냐하면 원래 나는 지독하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결혼 초에 교회에 다니던 아내를 나는 무척이나 괴롭혔다. 그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보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신기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본다. 나는 인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사로 일어났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 가정에는 찬송이 울려 퍼진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교회에 오는 날에 나는 항상 서둘러서 일찍 온다. 교회에만 오면 즐겁고, 피곤했던 육신도 상쾌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이 좋은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고픈 마음이 변치 않기를 더욱 기도할 것이다.

김수연(민주집사, 20교구)

“나가서! 데려와! 채우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직분을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우리 반 어린이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핏줄로 맺어졌기 때문인가 봅니다. 아직 제가 미혼임에도, 마치 제 자식과 같은 애들함을 갖게 됩니다. 옆에 앉히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이렇게 행복한다.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예쁜데, 어린이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기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교사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희미하게나마 느끼게 됩니다.

특히 5월 20일 새생명 전도주일을 앞두고 유년부는 약 두 달 전부터 모든 교사들이 전심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매일 세 끼 금식 릴레이 기도 및 12시 정오 1분 기도를 실시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교사 전체에게 기도제목이 적힌 카드를 항상 소지하며 수시로 기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매주 모든 교사와 아이들이 “나가서! 데려와! 채우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렁찬 구호를 외치면서 가슴속에 한 영혼이 풀어지길, 십자가의 은사가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태산자 카드를 작성하며 그 친구를 위해 작정 기도하였습니다. 매달 두 차례 토요일에는 근방 초등학교에서 ‘학교 앞 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산한 저희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조용히 예수님을 생각하면, 결국 이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모든 부서에서 이 날 분명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같은 죄인의 마음에도 어린 아이들이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새생명 전도주일에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기도 할지라도 매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이 날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매일이 그러한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사의 삶이 이제 주님만을 위해 모든 것을 쏟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수연(교사, 유년부)

*지난 20일(주), 새생명 전도주일(재)교육위원회(이하)를 통하여 많은 새생명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흥원교회 대학부에 다니던 아들이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흥원교회로 옮길 것을 간곡하게 권유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와 흥원교회의 말씀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다 똑같은 성경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닌데 무엇이 다르냐?”며 반문하는 제게 아들은 진지하게 설명하였지만 교회를 옮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하여 아이들과 다른 교회를 나가니 주일에 아이들 얼굴도 볼 수 없으니 한 교회로 합쳐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멀거니 모든 걸 내려놓고 흥원교회로 옮겨 믿음 생활한 지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를 옮긴 지 2년쯤을 지났을 무렵 아들이 제게 “충현의 성도로 변한 걸 느끼느냐?”고 물어왔지요. 그 때 저도 모르게 조금씩 변한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설교가 아닌 알토란 같은 주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성도에게 간절히 전하시는 위임목사님, “예수님이 진짜”라고 교육찬양집회 시에 전하시는 그 말씀이 38년을 믿음 생활했다고 자부했던, 교만과 허영과 가식으로 회화한 무덤 같은 내 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지요. “십자가를 지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리고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알드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교회만 오면 무슨 죄를 그대 많이 저서 그리 우느냐?”며 우스개삼아 던지시 말을 던지지만, 저는 지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그분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충현의 성도로 만들어 주신 주님은 이제 남편을 먼저 주시게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감사헌금을 내는 남편의 마음을 먼저 주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듣게 하더니 집에까지 와서도 통곡하며 울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 가면 왜 눈물을 흘렸는지 아는 남편은 이제 근무시간 군인에서 매일 새벽에

배를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짐의 성도가 되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늘 깨어서 근신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나 가깝게 서울에 올 때만 교육찬양집회에 참석하는 게 아쉽지만 주일만큼은 매주 서울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저녁에 군산으로 가서 생활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데 주님이 저의 말을 먼저 주시게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게 하고 회사를 쉬는 날이면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섬기는 믿음을 주셔서 온 가족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 1월에 결혼한 아들에게도 믿음 좋은 아내를 주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믿음의 길을 같이 걷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머느리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며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새가장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종인된 삶을 살아 늘 십자가 군인이 되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혼자 믿음 생활을 했던 저는 주님을 믿는 친구에 가정이 그리 부러웠는데 이런 아무 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선언하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가정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늘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죄인을 충현의 성도로 보내주셔서 늘 말씀 속에서 찬양으로 선교로, 기도하게 하시며 변화해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변해지기 위해 악한 내 모습과 심령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찬양이 이 가정의 담에도 많은 충현의 가정들을 변화시켜 자신을 부인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렘루아, 아멘.

김경희(집사, 13교구)

교회 탐방 중헌교회 · 중헌복지관 직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된 믿음의 사람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사 133:1)

지난 19일(토)에는 교회 · 복지관의 직원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람으로 하나되는 계육대회가 있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되니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십자가로 하나된 기쁨을 누렸던 그들의 밝은 얼굴을 담어 보았다.

※ 계육대회는 교회에서나 복지관에서 많이 해 보았지만 이렇게 ‘교회 직원들과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과연 잘 융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을 넘어 정말 즐겁게 하나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하는 일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김성만, 복지관 직원총연선)

※ 이렇게 모두들 즐거워하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네요.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모르게 벌이 느껴졌는데 행사를 하며 똑같이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마음을 오고 갈 때마다 좀 더 편하게 얼굴을 대할 것 같습니다. (김아연, 교회 행정과)

※ 5월 25일이 되면 복지관이 개관 12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계육대회가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교회 직원들과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식사 시간이 다르다 보니 얼굴을 대할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뭉쳐서 웃으며 부딪치며 다 같이 뛰는 것을 보니 자연스레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정자, 복지관 사무과)

※ 싱그러움 5월, 중헌의 온 가족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받는 모습이 정말 예뻐 보여요. 주님의 눈에는 더 예뻐보이지 않겠나! (김일자, 교회 관리과)

※ 교회 직원들과 같이 어울리니 정말 좋아요. 발야구를 하며 ‘저분이 힘이 정말 세구나!’하며 얼굴도 기억하게 되고요. 비록 게임이었지만 반가웠다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은미, 복지관 그룹을 담당)

※ 어릴 적 소꿉친구는 마음으로 식사와 간식을 준비를 했어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저도 즐거웠고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서로 고통했던 오들의 마음이 계속 이어질 것 기도합니다. (김성영, 교회 행정과)



※ 조목의 자연 안에서 함께 어울려다 보니 얼굴만 보았던 교회 직원분들과 더 많이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김현정, 복지관 사회재활팀)

※ 같은 교회 테두리 안에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되는 시간이 된 것 같이 기쁩니다. (조유리, 교회 관리과)

※ 교회 마음을 오가며 얼굴을 잘 몰랐던 인사도 뜻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 인사도 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연민, 복지관 사회재활팀)

※ 이렇게 뛰며 게임을 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좋고요, 게임을 하고 바로바로 상품을 주시니 유익한 이런 아기가 된 것 같이 기쁘네요. (박신영, 복지관 전담교육팀)

※ 시간은 다르지만 교회 식당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오다다 보는 복지관 직원과 함께한 것만으로도 계육대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계육대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수, 교회 관리과)

※ 처음으로 함께 한 행사였는데 몸으로 부딪치며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재우, 복지관 기동중보)

※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이런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모두들 적극적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잘 모르고 지냈던 복지관 직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손정애, 교회 행정과)

※ 친선계육대회인데 ‘직원들과 복지관팀을 나누면 지나친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생각을 뛰어 넘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아시는 일임을 다시 보게 되어 감사뿐이에요. (김향진, 교회 관리과)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감동적인 비유를 기록하고 있다. 돌아오는 탕자 한 명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를 낚은 가수로 끌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독생자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가 2007년에 우리 교회에 의해 다시 보여지고 있다. 한 때 복음에서 떠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던 중헌복지관이 2007년부터 복음 위에 건고히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중헌복지관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할 것이다. 모든 전신 장애우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편진국)



For 사랑하는 딸님.

딸님! 제 Zion 이예요. 비바쁘신데 이렇게 시는 내주셔서 편지를 써 주니 감사하네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딸님 덕에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욱 감사한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녀신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신것이지요. 신비의 보물을 주께 하소인 것입니다.

딸님의 말씀은 지를 생명을 주는 천국의 도구가 되게 하였고요, 제가 나뉘어 어둠이 깨어나는 천천히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자녀로 주님께 승복 하였던 것은 말할수 없는 기쁨이예요.

적속한 저의 노래를 기쁘게 들으셨나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른이 된대까지도 사랑받고 말씀 전해주세요. 그리고 사랑, 제가 언제나 딸님을 사랑하는데 잊고 마세요...

2007/5/10
with my deep love,
Zion Lee.

PS. Congratulations on your daughter
"Esther's wedding!"

(이지은(조동부))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875	정진자	2	장년3부	한진옥(21)	898	이성희	2	장년3부	이철희(2)	921	장상훈	7	장년1부	이근우(7)
876	최보영	12	대학부	김은숙(11)	899	김영호	12	장년2부	조태환(12)	922	허진희	21	대학부	백지수(13)
877	김종주	13	중등2부	이성희(5)	900	남준희	23	장년1부	남준희(14)	923	김주연	2	장년1부	이예숙(20)
878	조윤환	13	중등2부	임인혜(1)	901	김정환	1	장년1부	김희술(1)	924	이수자	13	장년2부	이옥희(13)
879	김진사	11	장년2부	김희(11)	902	박민서	24	장년1부	김정희(2)	925	최수진	18	장년2부	이정희(21)
880	조창희	6	장년1부	한유미(3)	903	이미자	24	장년1부	안정희(24)	926	김민별	18	장년2부	이정희(21)
881	방금기	23	대학부	이현숙(23)	904	이진숙	20	장년3부		927	윤정식	22	장년1부	정은숙(22)
882	박성민	7	장년2부	박성희(7)	905	김영주	5	고등부	김지윤(5)	928	간지희	25	외신부	이윤진(1)
883	지연희	21	장년1부	배영진(21)	906	정기	21	장년1부	박진희(21)	929	양노	25	외신부	지아연(16)
884	정영민	11	대학부	백은숙(22)	907	김지연	11	장년2부	김현희(11)	930	김예숙(25)	외신부	김은숙(10)	
885	정창교	17	소양부	김영희(17)	908	이순환	21	장년1부	이연희(4)	931	비비리(25)	외신부	김은숙(10)	
886	윤영자	17	장년3부	김영희(3)	909	이계은	14	장년2부	김영희(3)	932	오보나	25	외신부	이윤진(1)
887	최이근	2	장년3부		910	송민숙	20	중등3부	서은숙(17)	933	수진	25	외신부	이윤진(1)
888	문인만	2	장년2부	김희(20)	911	이지은	23	중등3부	김영희(4)	934	최희준	8	대학부	김문구(20)
889	이현정	2	장년2부	김정희(2)	912	이진지	19	대학부	박현숙(20)	935	김성주	6	대학부	장정희(15)
890	전진환	14	장년2부	신영희(16)	913	박남희	5	장년2부	구영희(7)	936	이민진	24	대학부	장기원(15)
891	이영순	9	장년3부	정효희(11)	914	서희정	5	대학부	이이혜(5)	937	홍지영	20	장년2부	안영희(18)
892	김영순	18	장년3부	서경희(3)	915	김희희	5	대학부	김은숙(5)	938	김예경	21	장년1부	이연희(7)
893	김기영	2	소양부	김현희(12)	916	김영주	17	장년1부	김은숙(17)	939	이현정	21	대학부	김지현(11)
894	김영순	2	장년1부	김현희(12)	917	한예숙	23	대학부	김정희(18)	940	김민별	11	대학부	김정희(11)
895	김영희	8	중등2부	한계숙(8)	918	김현숙	20	장년2부	조은희(2)	941	박기원	18	장년1부	김은숙(23)
896	이광원	10	장년2부	류한희(7)	919	홍지영	20	장년2부	유영주(21)	942	김민희	13	장년1부	
897	조진근	17	소양부	정성희(17)	920	정두부	17	소양부	홍지현(11)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교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전도위원회 5월 지회별 월례회
일시: 27일(오늘),
오후 3시 10분
장소: 1지회: 제1교육관 404호
2지회: 제1교육관 405호
3지회: 제1교육관 409호
4지회: 제1교육관 410호

별 세

1. 이광근 집사(이봉주 성도의 부친, 14교구 무지개구역) / 19일 별세, 21일 장례
2. 최희송 씨(최낙은 집사의 부친, 22교구 호계구역) / 20일 별세, 22일 장례
3. 강덕택 타교권사(이혜경 성도의 모친, 김종식 성도의 장모, 3교구 상록1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결혼

1. 류영성 군(류해원 씨·홍금순 씨의 아들)과 김윤미 양(김장식 집사·강종애 집사의 딸, 2교구) / 6월 2일(토) 낮 12시, 상록회관 웨딩홀 5층 다이아몬드홀

◆ 교육훈련원 종강예배

일 시 : 5월 27일(오늘) 오후 3시 40분~4시 20분
대 상 : 수요성경공부 및 교사양성부 수강자

장 소 : 제1교육관 301호

◆ 2007년 CMTC 추가훈련 일정

일 시 : 6월 3일(다음 주일), 10일(주일), 찬양예배 후
대 상 : 2007년도 단기선교 희망자 중 미수료자 전원

장 소 : 갈릴리움

◆ 2007년 CMTC 제3차 1일 수련회

일 시 : 6월 2일(토) 오후 2시~5시
대 상 : 2007년도 단기선교 희망자 전원

장 소 : 갈릴리홀 외 지정장소

◆ 7교구 영성훈련 일 시 : 5월 31일(목)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 충현기도원

· 권사수련회 <주제 :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

일 시 : 내일(28일)~화요일(29일), 오전 10시부터

장 소 : 갈릴리움 대 상 : 모든 권사

·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일 시 : 6월 3일(다음 주일) 오후 12시 20분~1시 40분
대 상 : 제1교육위원회 교사

장 소 : 제1교육관 507호

6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요예배 (창로)					찬양예배 (원주식)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III
6	3	임창식	노광헌	김승훈	안동현	이창로	강창식	한 숙	서귀순	
	10	조종환	김기철	함원주	한승균	신광철	김대용	유정자	권명옥	
	17	김신국	김태식	전학래	김구형	김은호	박용훈	이남숙	이복윤	
	24	전계식	신성길	서열식	이정우	권명옥	박철구	윤원숙	김현미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5/28 (월)	5/29 (화)	5/30 (수)	5/31 (목)	6/1 (금)	6/2 (토)	6/3 (주일)
설교자/기도자	유현철/김태식	탁정현/전성욱	김완수/이재호	최성득/강병훈	류병희/강천석	여국근/이훈순B	이성진/옥미자
성 금 분 음	자 5:1-14	자 5:15-23	자 6:1-11	자 8:12-19	자 8:20-35	자 7:1-23	자 7:24-27

예배담당 안내 (5/30-6/3)

날짜	예배	설교	찬송	기도	찬양
5/30	수요일	성령의 열매(히바) (5:22) 김성관 목사	사후회	이소규	내 영혼에 몇몇 비지니 (호산나 찬양대)
5/30	수요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 (눅 19:1-10) 김완수 목사	타락한	이윤희	주제 드림나 (김포양 찬양대)
6/1	금요일	김성관 목사	김준희		예수찬양 찬양대 / 바울 찬양단 / 스킵노드 찬수원
6/3	주일 I	화 평 (갈 5:22-23) 전성원 목사	양일식	(예배 전 찬양)	
6/3	주일 II	화 평 (갈 5:22-23) 김준희 목사	류병희	노광현	주 소망 외에는 / 바울 찬양단(전일 찬양대)
6/3	주일 III	화 평 (갈 5:22-23) 김성관 목사	김익찬	김승곤	내 평생에 가는 길 / 바울 찬양단(전일 찬양대)
6/3	주일 IV	화 평 (갈 5:22-23) 김성관 목사	윤슬인	안우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대니 조영환(바울 찬양대 솔리스트)
6/3	주일 V	화 평 (갈 5:22-23) 최홍철 목사	유성태	이영희	주의 소명을 내기 들으라 / 변형 열매찬양단 (노드 - 김지희)
6/3	주일 VI	부활의 능력 (골 2:1-12) 김성관 목사	양정호	강희숙	전도위원 찬양대 / 22구 / 임남우 찬양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성야예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 당
수요찬양집회		저녁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6-5425)

주 제	시 간	차 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아침	자정 11:00	금요일아침집회후 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 후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표, 오후 1시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스페인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에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 오전 9:00 2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동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동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동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동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동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부	(토) 오후 5:4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영선 1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영선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영선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영선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소양부	오후 12:15	강길리회
사랑부		북치광리1치광
예배다부	오전 9:00(하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악아부	(7)악장30:30~40:00 (8)악장7:00~악장9:30	선교관1층
가악부	오후 12:15	대니홀
영선인원집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영선장년교육	주간교육	충현전지관
	오전 9:00~12:00	이민회

충현 기도의 창

- ① 제2차 창치기훈련(서로 사랑하자, 요일 4:7-11)에
충성의 성도들이 모두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자.
- ② 25개 교구를 통하여 충헌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
을 주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
되게. 충성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
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
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
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언을 믿게 하소서.
- ⑥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어 예수삼십대 장로들을 통해서 금
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⑦ 피비탄은 일꾼들이 모든 영혼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 되게 하라되 매주일 동국초을 생애가족들이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된
교회로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충헌목지
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단절지식 및 분산 외벽식재 보수
공사에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112호 옆)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 시무로출 | | | | ■ 부속사 | | | | | | |
|---------------|---------------|---------------|--------------|--------------|--------------|--------------|--------------|--|--|--|
| 김은호
제1교무부장 | 노영환
당부서 | 이병학
시무부장 | 이 훈
시무부장 | 단순우
예배부장 | 박기근
예배부장 | 유병희
13.2구 | 여국근
15.0구 | | | |
| 김종구
총신노년회장 | 최무식
당부서 | 이창호
예배부장 | 차신록
신교무부장 | 김남광
신교무부장 | 김한철
3.2구 | 장 훈
4.2구 | 임병택
7.2구 | | | |
| 이승식
선양부장 | 김두현
제2교무부장 | 전홍용
제2교무부장 | 전홍렬
기회부장 | 이정우
봉사부장 | 하용철
3.2구 | 안진철
3.2구 | 정승진
9.2구 | | | |
| 김진용
당부서 | 한승규
당부서 | 김영수
제2교무부장 | 기하철
기회부장 | 원용철
기회부장 | 최석규
3.2구 | 이병형
3.2구 | 이경훈
9.2구 | | | |
| 이병수
예배부장 | 안동현
당부서 | 황인숙
12.2구 | 박정근
14.2구 | 김우형
7.2구 | 황진식
3.2구 | 유세진
11.2구 | 전성원
11.2구 | | | |
| 이계인
실업진흥부장 | 이학악
11.2구 | 이태식
장년부장 | 김종구
장년부장 | 권명옥
기회부장 | 이용진
양성선 | 양정식
17.2구 | 유병태
19.2구 | | | |
| 조종환
제1교무부장 | 배준식
예배부장 | 김영달
기도반부장 | 이실호
기도반부장 | 최지윤
시무부장 | 김한우
14.2구 | 최석조
23.2구 | 최가진
23.2구 | | | |
| 노영환
19.2구 | | | | ■ 여전도사 | | | | | | |
| 최철환
3.2구 | 김영순
9.2구 | 정창길
21.2구 | 신상수
25.2구 | 고세출
12.2구 | 유은숙
15.2구 | 한영준
16.2구 | 김진석
17.2구 | | | |
| 김정환
합동부장 | 유계민
합동부장 | 이달옥
당부서 | 정광현
당부서 | 김승곤
당부서 | 김진하
당부서 | 안태순
당부서 | 홍승래
당부서 | | | |
| 합동부장 | 유계민
합동부장 | 정신현
합동부장 | 안치현
합동부장 | 김영근
합동부장 | 김진하
합동부장 | 김정현
당부서 | 이은숙
당부서 | | | |
| 김정환
합동부장 | 유계민
합동부장 | 임창호
합동부장 | 김은숙
합동부장 | 전하태
합동부장 | 전은희
14.2구 | 김경자
18.2구 | 김희희
21.2구 | | | |
| 김신자
12.2구 | 전계식
12.2구 | 장승규
11.2구 | 전은애
11.2구 | 서영식
11.2구 | 한성일
22.2구 | 장병기
22.2구 | 윤지아
9.2구 | | | |
| 구재환
3.2구 | 송두희
3.2구 | 최자용
예배부장 | 신선길
예배부장 | 유상태
예배부장 | 전철외
7.2구 | 이혜숙
7.2구 | 류진희
대우 | | | |
| 박상태
15.2구 | 김규식
15.2구 | 신광철
신교무부장 | 정창수
신교무부장 | 임복식
신교무부장 | ■ 천령교회 장모구 | | | | | |
| 이성식
15.2구 | 오순도
15.2구 | 양기수
5.2구 | 김태식
15.2구 | ■ 천일교회 사문서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천일교회 장모구 | | | | | | |